# 自由城

<(Jayusong)(Freiburg)> 제1호

발행일 : 2010. 12. 30
발행인 : 프라이부르크대학 한국동문회
*Freiburger Alumni-Club Korea*
편집인 : 최종고


## <自由城 (Freiburg)>을 창간하며 *Zur Publikation*

우리 프라이부르크대학 한국동문회가 창립된 지도 30년에 이르고,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만큼 발전된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무엇보다 만나면 화기애애하게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러한 사실을 프라이부르크 모교에서도 잘 알고 세계에서 모범적인 동창회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강신호 회장님께서 Ehrensenator로 활동하시고, 본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본인이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하여 동창회 사무실에서 여러 사실들을 관찰하였는데, 각국 동창회들이 각각 활동하는 사항들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하여 보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7년에 모교 55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과 프라이부르크(*Freiburg und Korea*)>라는 기념문집(Festschrift)을 잘 만들어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활동과 역사를 기록하여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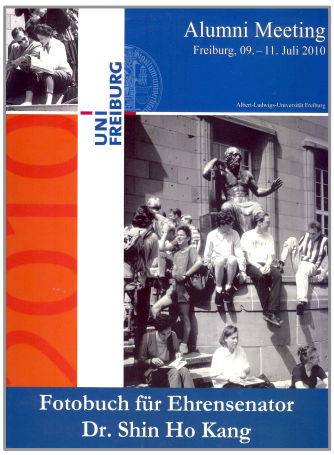
우리 동문회는 회원이 250명이 넘고, 각자 모두 전문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식은 많은데 일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식지 <*自由城(Freiburg)*>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우리의 모습을 담는 공간이오니, 계속 우리의 현존을 문서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우리의 산 모습을 담아나가겠사오니, 후일의 회장님들도 계속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 드립니다.

2010년 12월 5일
프라이부르크대학 한국동문회장 최 종 고
Prädsident, Alumni-Club Korea
Prof, Dr. Chongko Choi

## 강신호 회장 프라이부르크 Alumni-Meeting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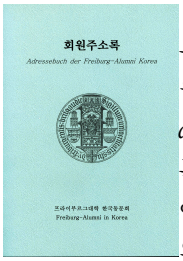
### *Besuch zum Alumni-Meeting von Ehrensenator Dr. Shin-Ho Kang*




강신호 회장께서는 지난 7월 9-11일 프라이부르크대학 Alumni-Meeting에 참석하셨다. 이번 모임에는 대학 캠퍼스 법대 건물 앞에 Platz der Weissen Rosen이란 공간이 설치되었는데, Schiewer 총장과 함께 친히 백장미를 심으셨다. 또한 Rolf Böehme 전 시장과 Frau Böhme 내외의 초청으로 댁에서 연 Garden Party에도 참석하셨다.

## 〈회원주소록〉 발간

### *Publikation des Adressebuches von den Mitgliedern*




그동안 이메일 주소록으로만 유지해오던 동문 주소록을 지난 7월 1일 <*회원주소록(Adressebuch der Freiburg-Alumni Korea)*>이라는 책자형태로 출간하였다. 47면에 이르는 이 주소록에는 258명의 회원이 한글이름, 독문이름, 직장명, 주소, 전화와 핸드폰, 이메일주소가 적혀있다. 만드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또 바뀐 사항이 있을 것이다. 당장 주소록을 다시 만들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락해주시면 소식지<*自由城*>에 싣도록 하겠다.

## 4월 정기총회

### *Jahressitzung im April*

지난 4월 14일 교대역앞 해남 천일옥에서 정기총회가 모였다. 그동안 수고하신 최 경원 회장의 후임으로 최종고 서울법대 교수가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최종고 신임 회장은 전 회장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특히 지방에 있는 회원들과 젊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회로 활성화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렇게 4월부터 회장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절이 좋은 4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10월에 모임을 갖는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고 문: 강신호, 강빈구, 계희열, 고위공, 곽복록, 김기환, 김성수, 김지수, 남영자, 박순용, 박용상, 서 민, 손해목, 이영준, 임동진, 임병현, 차인석, 최경원, 최창무, 허 경,

현민자, 홍영남, 황적인

회 장: 최종고

부회장: 김성진, 김진환, 송영근, 정동호

총 무: 박종선, 김효정

이 사: 강희원, 권기홍, 김 천, 김대식, 김상겸, 김상용, 김성기, 김성태, 김수영, 김임구, 문태운, 박한철, 신 율, 신현윤, 염동신, 오정화, 이만방, 임 웅, 한수웅, 황연애

지방이사: 김경화(대구), 송영국(전주), 유전철(광주), 박영수(부산), 이규식(진주), 조병선(청주)

감 사: 박경명, 권오승

## 최종고 회장 프라이부르크 방문

### *Freiburg-Besuch von Präsidenten Chongko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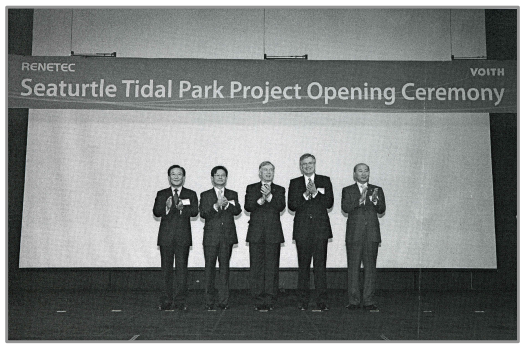
<E. Meroth 시장과 함께 W.Scheel 전대통령 초상화 앞에서>

최종고 회장은 지난 9월 25일-10월 6일 하이델베르크와 프라이부르크를 다녀왔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세계법철학회(IVR) 이사회에 참석하고 프라이부르크에로 가서 본부에 있는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마침 쉬버(Schiewer) 총장은 칼스루에의 회의에 가시고 드라이어(Rudolf Dreier) 박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한국동창회에서 만든 <회원주소록>에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지난번 강신호 회장 내외분께서 Alumni-Meeting에 참석하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그때 찍은 사진들로 만든 기념앨범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동창회 사무실에는 최 회장이 2008년 9월에 Uniseum에서 전시한 그림 열 작품이 벽에 걸려있어 매일 한국동창회의 현존을 느낀다고 해서 웃었다.

프라이부르크 독일 동창회장이며 인근 Bad Krozingen의 시장인 메로트(Ekkehart Meroth) 박사의 초청을 받아 그곳에서 점심을 나누고 시내를 관광하였다. 마침 Walter Scheel 전 연방대통령께서 시장실 바로 아래 개인사무실을 갖고 계셔서 함께 내려갔더니 출타중이고 여비서가 한국에서 받은 훈장 등을 보여주면서 반가와 하였다. 최 회장의 시화집 <*So schön ist Freiburg*>를 한권 선사하고 왔더니, 후일 Scheel 전 대통령이 친히 감사편지를 보내오셨다.

## Gerhard Koehler 대통령 방한

### *Bundespräsident Koehler besucht Rennetec Co. Korea*




<G.Koehler대통령의 레네테크 방문>

독일연방공화국 Gerhard Koehler대통령께서 지난 2월 7-10일 방한하여 한독관계의 발전을 확인하였다. 그중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인 레네테크(사장 박종선 변호사)를 방문하여 프라이부

르크 한국동창회로서도 경사였다. 레네테크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독일 Koehler 대통령과 많은 프라이부르크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레네테크는 수력발전 선진업체인 독일 포이트하이드로와 함께 진도 장죽수도 인근 해역에 조류발전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테스트한 뒤 2018년 까지 조류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조류발전단지가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킨 전남 진도 앞바다에 세워진다. 성공과 발전을 빈다.

## 프라이부르크 법대-서울법대 자매 심포지움

### *Freiburg-Seoul Symposium über <Recht, Kultur und Globalisierung>*

10년 전부터 자매관계를 수립해있는 프라이부르크법대와 서울법대는 금년 9월 14-15일 서울법대 서암홀에서 제5차 심포지움을 가졌다. <법, 문화와 세계화> (Recht, Kultur und Globalisierung)란 주제의 본 심포지움에는 프라이부르크대학으로부터 Thomas Würtenberger, Rainer Wahl, Uwe Blaurock, Wolfgang Frisch, Gerhard Hohloch, Hanno Merkt, Ralf Poscher, Alexander Bruns 교수 일행이 참석하였고, 특히 Frisch 교수는 판사인 부인 Frau Frisch를 동부인해 오셨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 유숙하면서 이틀에 걸쳐 진지한 학술회의를 마치고, 주한 독일대사 자이트(H-U. Seidt)박사가 대사관저에서 베푼 만찬에 초대되었다. 사흘째 날에는 판문점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한국춤의 체험관광을 즐겼다. 2년 후에는 제6차 모임이 프라이부르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구쪼니 교수 서울대 강의

### *Prof. U.Guzzoni lehrt an der SNU*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저명한 여성 철학자 Ute Guzzoni 교수가 2009년 2월 16-27일 두 주간 서울대학교 철학과 머물면서 <Hegel에서의 동일성과 이에 대한 Adorno와 Heidagger의 비판>이란 주제의 블록세미나를 하였다. 본회 회원인 정 호근 교수가 수고를 하였다. 학생 및 교수들과도 광범한 대화의 기회를 가졌던 구쪼니 교수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지난 10월 1일 프라이부르크의 헤르더 출판사에서 모인 알베르 출판사 창립 100주년 모임에서 최종고 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 Bernd Martin 교수 방한

### *Prof. Bernd Martin besucht Korea*

<오른쪽에서부터 문태훈, 최종고, Martin, Vermeersch,정긍식 교수>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 Bernd Martin교수께서 지난 10월 6-9일 서울을 방문하였다. 7일에는 서울대 규장각에서 <독일-폴랜드와 한국-일본 관계의 비교>, 8일에는 문태운 교수의 주선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안보>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가졌다. 독일과 중국, 일본, 한국의 관계사에 관한 많은 연구서를 내었고, 프라이부르크대학사, 그리고 하이데거의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마틴교수는 그동안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한 바있다. 이번에도 약 한달에 걸친 아시아 순방 강연여행에서 첫 번째 방문으로 한국을 택했는데, 프라이부르크로 돌아가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Schauinsland로 올라가는 Horben 동네에 사시는데, 우리 동문들이 연락하면 반가와 하실 것이다.

## Rainer Frank교수 방한

### *Prof. Rainer Frank besucht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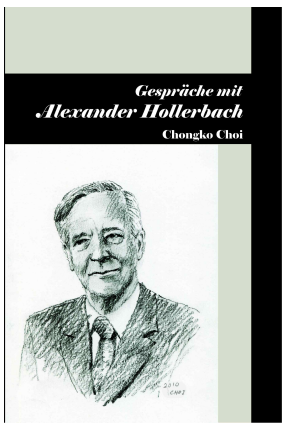
프라이부르크 법대의 민법교수이며 세계 가족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Rainer Frank 교수가 지난 10월 25일 다시 서울법대를 방문해서 <가족법에서의 유류분제도>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 Frank교수는 지남 2007년도에 1년간 서울법대에 교환교수로 재직한 바있어 한국과 특별한 교분을 갖고 있다. 연세대의 백태승 교수, 중앙대의 김상용 교수의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강연을 마치고 서울법대 정종섭 학장과 최종고 회장, 호문혁 교수, 권오승 교수 등과 환담을 나누며 앞으로 더욱 양교간의 학술교류를 심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왼쪽부터 정종섭, 호문혁, Frank, 최종고, 권오승교수>

## 홀러바흐 교수 80세기념 대담집 출간

### *Gespräche mit Prof. Alexander Hollerbach*

프라이부르크 법대의 원로 법철학자이자 법역사가인 Alexander Hollerbach 교수는 지난 2008년 여름학기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강의한 최종고 교수와 3회에 걸친 6시간의 대담을 <홀러바흐와의 대담(*Gespräche mit Alexander Hollerbach*)>란 책으로 출간하였다. 서울법대의 박은정 교수와 최종고 교수의 지도교수인 Hollerbach 박사는 지난 1984년 한국을 방문한 바 있고, <한국과 프라이부르크> 기념문집에도 '한국과의 만남들(Begegnungen mit Korea)'이란 자서적 글을 주셔서 우정을 확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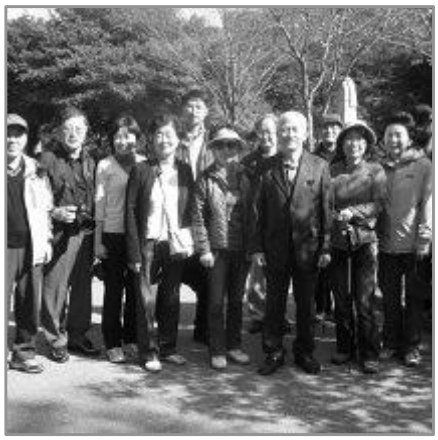


## 동창회 가을 모임

*Herbst-Wanderungstreffen in Daejeon*

본 회의 모임을 서울에서만 모인 때문에 지방에 있는 회원들이 참석하기 불편한 점이 없지않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대전을 택해 지난 10월 30일 동학사 등산을 겸한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대전에 사시는 정동호(충북대, 철학) 교수님과 서민(충남대, 법학)교수님이 사전답사를 하시는 등 애를 많이 쓰셨다. 그날따라 화창하기 그지없는 가을 날씨로 분위기가 최고조였다. 서울서 중형버스 한 대로 김지수 전회장 내외, 홍영남 전회장 내외, 최 종고 회장 내외, 이만방 교수 내외, 김진환 변호사 내외, 채문석 박사 내외, 그리고 조명삼 박사, 정태경 박사가 동승하여 사당동 전철역 주차장을 출발, 공주를 거쳐 금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동학사에 이르렀다. 정동호교수, 서 민교수와 유지훈 교수 내외분이 기다리고 계시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바로 산채백반과 비빔밥의 점심을 먹고 동학사로 올라갔다.

가을의 절정 정취를 즐기려 전국에서 멀려든 등산객들의 틈에 끼어 마냥 즐거운 기분으로 사진도 찍고, 내려올 때는 김 지수 전회장 내외분이 빈대떡과 막걸리를 사주셔서 즐기기도 하였다. 올라오는 길에 천안의 <망향의 동산>에 들러 고 변영근선생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서울에 도착하니 오후 6시, 모두들 기분좋은 나들이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방에 계신 회원들이 지방유지 노릇하시느라 바쁘신지 부산, 대구 등지에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아마도 우리를 한번 초청하려는 건지?



## 변영근선생 묘소 방문

*Besuch zum Grab von Dr. Youngkeun Byun*

1927년에 나셔서 환갑되시던 1987년에 프라이부르크에서 작고하신 고 변영근 선생님이 가신지 23년이 지났다. '영원한 자유인', '영원한 프라이부르크인' 변 선생님을 기억하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본 회에서 장례식 이후 공식적으로 한번 참배하는 기회는 갖지 못하였다가 이번 동학사 모임에서 올라오는 길에 방문하였다. 외국에서 작고한 한국인을 위해 특별히 설립한 국립묘지 <망향의 동산> 장미묘역 가 5-16에 위치한 묘비 앞에서

준비해 가지고 간 <프라이부르크대학 한국동문회 일동>의 꽃다발을 헌화하고, 소주잔을 올리고, 최종고 회장의 추모사가 있었다. 어떤 회원은 큰 절을 올리기도 하였다. 인터넷에서 <망향의 동산>을 찾아 '변영근'이라 치면 묘비사진이 떠오르는데, 분향, 헌화, 참배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천안까지 일부러 못가시더라도 생각나면 언제라도 인터넷참배를 하기를 권장한다.

## 독검회 모임 성황

### *Staatsanwälten vom MPI treffen sich in Seoul*

독일에서 연수한 검사들의 모임인 독검회가 지난 12월 4일 서초동 <다향>에서 모임을 가졌다. 박순용, 김진환, 이종백, 조성식, 박한철 등 프라이부르크 막스 플랑크 형법연구소(Max Planck- Institut f.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에서 연수한 검사들을 포함한 30여명의 검사 및 변호사들이 모였다. 그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박한철 동부지검장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후임에 성영훈 광주지검장이 신임회장을 맡았다. 독검회는 그동안 <독일법 포럼>을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연구성과를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법학계는 로스쿨로 독일법학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져 아쉬운 검찰계에서 이렇게 진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고무적으로 주목된다.

## 현재 프라이부르크의 한인사회

### *Koreanisches Verein in Freiburg*

현재 프라이부르크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한인유학생회는 그리 활성적이지 못하고 주로 교회와 성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철학, 독문학, 법학 등의 분야, 카리타스학과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2009)부터 프라이부르크한인회(회장 Frau Fischer)가 새로 결성되어 주로 한독가정을 중심으로 새 활동을 시작했으며 베를린의 한국대사관과의 연락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3일에는 프라이부르크 근교 Denzlingen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 회원동정

### *Neues von den Mitgliedern*

- 김지수 전 회장은 한국외대를 은퇴하시고 현재 태국 부라파대학의 대우교수로서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
- 최창무 대주교님은 광주대교구장을 은퇴하시고 서울에서 편히 휴식하시며 근자에 미국과 프라이부르크에도 다녀오셨다.
- 이만방 교수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시고 작곡가로서 전념하고 계시다. 그의 작곡활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독일서 출간된 <세계음악사전>에도 크게 소개되었다.
- 호문혁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7.8월 훔볼트재단의 지원으로 뮌헨대학 법과대학에서 연구하고 돌아왔다.

- 오희숙 교수 (서울대 음대)는 지난 10월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 곽복록 전 서강대 교수는 괴테의 <파우스트>, 에커만의 <괴테와의 대화> 등 수많은 번역과 저서를 내고 여전히 건강히 지내시고 계시다.
- 황적인 서울법대 명예교수는 유기천기념출판재단의 등록을 완료하고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학술원 회원으로 여전히 학술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
- 이영준 변호사는 지난 6,7월 함부르크의 막스 플랑크 사법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돌아왔다.
- 계희열 전 회장님은 아들 결혼식을 잘 마치고, 내외분이 행복하게 잘 지내신다.
- 김기환(전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가천의대에 출강하시며 잘 지내신다.
- 김성진 한림대 교수는 국내외 학회활동에 여전히 바쁘게 지내신다.
- 김주연(전 숙명여대 독문과)교수는 정년후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으로 재직중이시다.
- 조명삼 박사는 인천 국제특별개발구에 근무하시고, 부인 김아미여사는 미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교육과 문화활동을 하고 계시다.
- 남영자 박사는 영동에 사시며, 카리타스 활동을 후배들과 함께 여전히 프라이부르크대학과 공동으로 전개하고 계시다.
- 신현윤 교수는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법과대학 학장을 겸임하고 있다.
- 임동진 변호사는 변호사 활동의 바쁜 시간에도 홈즈의 <보통법>*(Common Law)* 등 번역 서를 연달아 출간하여 학구적 법률가로 칭찬받고 있다.

(이 회원 동정란의 소식을 인터넷메시지를 통해 모집하였는데 아직 잘 몰라서인지 많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음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그동안 우리 회의 통장이 있었는데, 역대 회장님들과 박종선 총무의 희생적 운영으로 통장의 존재조차 불분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통장을 개설하였사오니, 회비를 일년에 *10만원씩*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찬조금은 제한없이 환영이구요. 괴팅겐동창회 등 다른 동창회도 기본 회비는 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강 회장님과 역대 회장님들에게 많이 의존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작은 살림이나마 독립적으로 꾸며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사회적으로 지도급에 있는 우리 동창들은 이런 긍지와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새 통장번호는, 하나은행 241-910002-12305 (프라이부르크동창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 편집위원과 원고모집

본지의 편집을 위해 김임구 교수, 김진환 변호사, 김효정 박사, 오정화 교수, 신 윤 교수께서 편집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너무 긴 글은 곤란하고 짧고 재미있는, 특히 동정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